

언젠가 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화장실이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팬 안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피우면 냄새가 옷에 배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인지 기다려 봤다. 이윽고 그 사람이 나왔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우 소박하고 가냘퍼보이는 얌전한 여학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느꼈다. "담배는 정말로 기호품이구나"하고

담배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618년 경이라고 전해진다. 일본에서 전해졌거나 아니면(또는) 북경을 내왕하던 상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일본에서 전래된 품종은 南草, 倭草였고, 차와 같은 새로운 기호품이라는 의미에서 新茶라고도 불리웠다. 담배는 급속히 보급되고 재배도 많이되어 청나라로 보내는 수출품으로도 큰 구실을 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어른의 기호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그런만큼 권위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長竹(한국의 옛날 담배파이프)를 물고 있는 것이 양반의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어(후에) 일반에게도 보급되었다. 술과 담배는 둘다 기호품이지만 술은 비교적 제재가 약했다. 술은 연상(윗사람)앞에서 마셔도 괜찮았으나 담배는 달랐다. 이것은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건방지게 여겨져 온 풍속(습)에서 보인다. 성미가 급하던가 움직임이 너무 빠른 사람을 가리켜 <번갯불에 담뱃불 붙이겠다>고 하는 속담이 있고, 설화도 있다. 그러나, 1928년 영국에서의 담배는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논문 발표후, 문제화 되어 왔다.

이제 곧 21세기가 되는 첨단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이제와서 담배는 어른의 권위다, 건강에 해롭다 따위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품을 때와 장소를 가려(피워) 타인에게 욕을 먹지, 듣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